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마포구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마포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성미산마을 캠프
수상내역	마포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공모전 장려상
작가	이탁연, 조은혜
공모분야	창작이야기
장르	단편소설
소재	성미산마을
기획의도	이기주의로 점철된 현대사회에서 마포구의 성미산마을은 공동체정신을 회복하고 가족과 이웃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주인공의 이한국과, 가족찾기캠프를 통해, 성미산마을의 가치를 알리고, 우리사회가 성미산마을처럼 이타주의를 살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집필하였습니다.
스토리 구성 (Plot)	<p>스물넷의 이한국은 문학과 연극에 관심이 많은 건실한 청년이다. 어려서는 할머니에게 길러졌지만,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입학한 후로 하숙집에서 이웃 세 명과 함께 생활한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웃에 대한 정(情)도 예절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이한국은 우연히 ‘가족찾기캠프’의 광고를 발견한다. 이웃이 함께 사는 공동체,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마을에서 주최하는 행사였다. 공동체와 가족구조가 붕괴되는 오늘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맞는 이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었다.</p> <p>이 글은 이한국이 3박4일간 성미산마을에서 가족찾기캠프를 통해 얻은 감정이 고스란히 담긴 단편의 이야기이다. 이한국은 성미산마을에서 캠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의 소중함을 배웠고, 아련한 사랑을 느꼈고, 잃었던 공동체의 가치를 되찾았다. 특히 공기처럼 불감했던 가족과 이웃에 대한 고마움을 말이다. 덕분에 이한국은 당연히 여겼던 주위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보다 따뜻하게 누그러졌다. 사람 사는 동네, 마포구의 성미산마을에서 그는 새로운 가족과 이웃을 찾는 대신 지금의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찾았다.</p>

성미산마을캠프

1일

습기 묵은 흙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햇빛에 물든 성미산 나무 사이로 작은 마을이 엿보였다.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마을.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성미가 재작년 겨울에 이사를 갔던 곳이 바로 여기 성미산마을이다. ‘넌 이름이 성미라서 성미산으로 가나보다?’ 산 중턱 아래 수놓인 마을을 바라보니 문득, 짓궂게 놀리던 내게 소담히 웃어주던 성미가 생각났다. 같은 서울이지만 내가 사는 곳과 느낌이 사뭇 달랐다. 우연히 들른 유기농카페 ‘작은 나무’도, 성미산으로 향하는 길의 귀여운 벽화도, 낮은 건물과 주택이 들어선 동네도, 마치 고향에 온 것처럼 따스하고 포근했다. 사람 사는 동네. 재준이가 일러준 음식점 ‘성미산밥상’의 밥은 꼭 집에서 먹는 것처럼 모양과 맛이 익숙했다. 나는 3박4일간의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 이곳에 온 참이었다. 이웃과 함께 사는 공동체, 성미산마을에서의 가족찾기캠프라. 나의 기대는 점점 더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오후 3시. 잠깐 들른 성미산에서 내려와 걸음을 서둘러 연수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많은 참가자가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나는 멋쩍게 머리카락 긁으며 발로 땅을 툭툭 치고 있는데, 다른 참가자들은 그새 친해졌는지 잔뜩 즐거운 모양이었다. 그들의 행동에서 자신감과 설렘이 묻어나왔다. 나는 어색해 멀찍이 서 있다가 캠프진행요원에게 「47-이한국」이라고 적힌 명찰과 함께 「집, 새로운 이웃과 만나다」라고 낯짝하게 인쇄된 티셔츠 두 장을 받았다. 친구들도 없는데 괜히 참가신청서를 냈나, 후회하면서도 진행요원들에게 등 떠밀려 정신없이 옷을 갈아입고 말았다. 왼쪽 가슴께에 초록색 네모난 명찰을 달고 꾸뻑꾸뻑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백곰처럼 생긴 커다란 체구의 아저씨가 “안녕하세요.”라고 웃으며 내게 인사를 건넸다. “네에. 안녕하세요.” 나 또한 최대한 사람 좋은 표정을 해보이며 반갑게 인사를 받았다. 3박4일간의 캠프, 정말로 안녕했으면 좋겠다.

여느 날처럼 그날도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에 접속했었다. 무미건조하게 스크롤바를 내리며 분주히 마우스를 움직이던 내 눈에 짧은 광고 하나가 들어왔다. 「집, 새로운 이웃과 만나다!」 30포인트나 될까 싶은 단순하고 깔끔한 다홍색의 글자가 내 시선을 끌었다. 집? 이웃? 공동체와 가족해체현상이 자연스러운 요즘에 다들 스펙 쌓기에 바쁘지 누가 이런 걸 참가하겠어? 냉소적인 호기심으로 나는 가볍게 배너를 딸깍, 클릭했던 것이다. 연결된 사이트 창에는 회장이라는 마포구의 로고와 함께 가족찾기캠프에 대한 소개가 자세하게 적혀있었다. 이미 한 차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는 성미산마을의 이웃위원회는 제2회 가족찾기캠프에 참가할 남녀 각각 25명을 모집하고 있었다. 청둥오리, 마포나루의 황포돛대, 한강발전을 소재로 한, 화합과 발전의 뜻이 담긴 마포구 회장이 한동안 내 시선을 끌었다.

가족찾기캠프. 나이와 종교, 학력 등의 자격 조건은 없으며 전통적인 공동체와 가족구조가 붕

괴되고 있는 오늘날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마음에 맞는 이웃을 선택할 수 있는 캠프를 연다는 것이었다. ‘가족 찾기’를 성공하면 성미산의 집까지 선물 받을 수 있단다. 어쩐지 꼭 나를 위한 캠프라는 생각이 들자 모든 자질구레한 일을 뒤로 하고, 흡사 전쟁터에서의 지휘관마냥 비장한 표정으로 참가서 양식을 채우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심장이 쿵닥쿵닥, 물 만난 고기처럼 요동 치기 시작했다.

이쯤에서 내가 왜 그토록 가족찾기캠프를 기다리며 기대했는지 여러분은 궁금할 것이다. 해서 긴말할 것도 없이 내 이웃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어려서부터 할머니에게 길러졌던 나는 서울 소재의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 하숙집에 생활하면서 세 명의 이웃을 만났다. 그들이 누구 인가 하면, 불친절 무 반찬 하숙집 주인아주머니가 첫째요, 소주에 살고 주사(酒邪)에 죽는 윗 방아저씨가 둘째요, 무한남친교로 매일 밤 큰 소리로 통화하는 옆방누나가 그러하다. 그리고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본인 이한국은 양보와 화합의 산증인, 미소가 아름다운 남자다, 바로 이 말씀. 중요한 것은 매일 밤 이웃의 소음과 인색함에 고통 받으며 살아온 날이 자그마치 올 해로 2년째라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 네 명이 살 비비며 사는 서울 변두리의 연립주택을 수학 에 조예가 깊은 복덕방 아주머니는 ‘4000에 30짜리’라고 간단히 명명해 부르고는 했다.

성미산마을 이웃위원회는 가족찾기캠프의 참가자 50명을 5명씩 총 10개 팀으로 나누었다. 성 별, 연령, 지역, 가치관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팀이 구성된 것이다.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기 에 앞서 저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팀별로 모이기 시작했다. 두근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탁 자에 앉았을 때 나는 한두 명씩 자리가 채워지자 조금씩 실망했다. 기대했던 호감을 가진 사람 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새 시무룩해져서 사회자의 진행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속으로 푹푹 한숨을 내쉬기 시작했다.

“네! 여러분은 이제 가족찾기캠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번 팀원 들과 마주보며 인사해보시겠어요? 아직은 많이 어색하죠? 물론 마음에 들지 않는 팀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팀의 참가자가 마음에 들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모 두 앞을 봐주세요.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의 사진과 고유번호, 이름, 연락처가 적혀있습니다. 이 표를 대강당 게시판에 붙여놓겠습니다. 캠프가 진행되는 동안 만나는 사람 중에 찌릿찌릿 눈빛 교환이 이루어지거나, ‘아! 참으로 매력적인 나의 이웃이여!’ 하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과감히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웃도 만나고 사랑도 가꾸고, 뽕 먹고 알 먹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시겠지요? 3박4일 동안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미 한 명을 이웃으로 점찍어 두고 있었다. 옆으로 보나 앞으로 보나 가 까이 보나 멀리 보나 수려한 외모가 눈부신 내 마음의 보물 상자, 이름하야 진! 달! 래! 나와 함께 면접을 보며 당당한 각도를 유지하던 그 우아한 등판, 성모 마리아와 같은 따뜻한 눈웃음 과 인자한 꽃 미소. 한 여름날의 그늘을 만들어주는 버들나무와도 같은 나의 여인. 그녀는 꽃 꾀한 자세로 앉아 한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말갭게 웃고 있었다. 옆에 앉은 남성 참가자를 향해. 내가 아닌!

‘신이시여! 왜 제가 그녀의 옆자리가 아닌 이 자리에 앉도록 하셨나이까? 저를 큰 인물로 만들겠다는 시험판의 골레이옵니까? 따뜻한 이웃을 만나지 못한 제가 정녕 더 많은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한다는 것이옵니까? 오, 나의 진달래여!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이웃을 만났으니, 이젠 당신을 마음으로 껴안고 그 동안의 불운을 통 크게 용서하겠습니다. 우리 성미산마을의 주택을 분양 받아서 알콩달콩 참기름 냄새 잔뜩 풍기며 행복하게 살아요. 사랑해요 나의 이웃, 이리오오, 어서!’

팀원의 시선에 아랑곳 않고 손 모아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동안 오리엔테이션은 참가자들의 박수소리와 함께 끝이 났다. 곧바로 팀원들과 가벼운 다과를 먹으며 간단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주어졌다. 나는 기도하느라 축축해진 두 눈을 반짝이며 팀원들 한 명 한 명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여자 셋에 남자 둘. 우리 팀은 아주머니, 아가씨, 여중생, 아저씨, 그리고 나로 구성되어 있었다. 어색하게 눈인사를 주고받으며 우리는 각자 소개를 하게 됐다. 누가 먼저 소개를 할까요, 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 맞은편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손을 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평에서 온 백심자, 59년 돼지띠예요. 제가 좀 나이가 많지요? 호호호. 지금은 집을 개조한 작은 펜션을 운영하고 있어요. ‘늘 푸른 펜션’인데 언제 한 번 놀러오세요, 주중가격으로 서비스 두둑하게 잘 해줄 테니까. 지금껏 펜션에만 신경 쓰면서 살다보니 펄떡 정신 차렸을 때는 혼자더라고요. 이제와 보니 아등바등 살았던 게 다 뭐가 싶고,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하게 됐어요, 이 캠프.”

인상 푸짐한 아주머니에 이어 오른쪽에 앉은 붉은 머리카락의 아가씨가 조용조용 자기소개를 이어나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물여덟 살이고요. 진도에서 온 하수연이라고 합니다. 고군면사무소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으로 지내고 있어요. 음. 이 캠프에 참여하면 이웃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업무를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가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함께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하숙집 옆방누나와는 비교될 만큼 나긋나긋한 목소리의 차분한 사람이었다. 분위기는 어느새 누그러져서 자기소개는 시계방향으로 제법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서, 서울 일신여중에 다니는 2학년 3반 17번 이, 이선영이라고 합니다. 취, 취미는 독서이고 트, 특기는 피아노입니다. 제, 제, 제가 낮을 많이 가리고 기, 긴장하면 말도 잘 더, 더듬어서 놀림을 마, 많이 받아요. 이 캠프를 통해 조, 조금이라도 극복하고 싶어요, 용기 내 차, 차, 참가하게 됐습니다. 고, 고맙습니다.”

“어머. 선영 씨, 피아노 잘 쳐요? 나중에 한 번 들려줘요. 나 어렸을 때 피아노 배우는 게 꿈이었는데. 그때는 부잣집 자녀들만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난 지금도 피아노 잘 치는 사람들 정말 부럽고 예뻐 보여.”

인상 좋은 아주머니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것만 같은 여중생을 칭찬으로 토닥였다. 붉은 머리 아가씨도 질세라 재빨리 맞장구를 쳤다.

“조금 전에 캠프 일정표 확인해봤는데 셋째 날에 조별 장기자랑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선영 씨가 나가면 어떨까요? 물론 선영 씨가 괜찮다면! 아주 잘 할 것 같은데.”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이는 여중생의 표정을 확인하고 우리는 모두 하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조금은 어두운 안색을 가진 아저씨가 뜸 들이며 입을 열었다.

“저는 원래 사업을 하는데……지금은 그냥 조그만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사는 곳은 인천입니다.”

“에이. 선생님, 설마 그게 끝은 아니죠? 성함이랑도 말씀해주셔야죠.”

부드러운 목소리의 아가씨가 코를 찡긋했다.

“아, 제 이름은 성동하입니다. 나이는, 허허허. 삼자 씨보다 한 살 많습시다.”

“백심자예요, 삼자가 아니라.”

짐짓 눈꼬리를 사납게 해 보이는 아주머니에게 아저씨는 머쓱하게 웃으며 미안해했다. 그에게 인자한 미소로 답하는 아주머니를 바라보며 나는 자기소개를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이한국입니다.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나이는 스물넷입니다.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문학과 연극에 보다 관심이 많아요.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촉박한 일정인 만큼 최대한 빨리 친숙한 분위기로 이끌어야하는 위원회의 바람으로 각 팀은 ‘의무적으로’ 함께 식사를 하고 숙소로 돌아갔다. 첫날 일정은 고령 참가자와 지방 참가자를 배려해 저녁식사로 마무리 되었고, 숙소 안내 후에는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자유시간의 활동이라고 해봤자 매트리스를 한 장씩 깔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잠자리가 설어서 그런지 나는 나무늘보처럼 눈을 깜빡이며 천장만을 바라보다 문득 진달래를 떠올렸다. 「안녕하세요. 캠프 참가자, 57번 이한국이라고 합니다.」 미인은 용기 있는 자만이 얻는다! 나는 큰 맘 먹고 문자를 보냈다.

10분 후에 홀에서 진달래를 만나기로 했지만, 괜히 들뜬 마음에 미리 나와 복도를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쿵닥쿵닥. 세차게 뛰는 가슴을 들썩이며 얼마나 시간을 보냈을까. 몸의 선을 여실히 드러내는 검정색 트레이닝 복의 그녀가 수수한 미소를 가득 짓고서 내게로 걸어왔다.

“한국 씨가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기에……이 책을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뭐든지 책이라면 사족을 못 써요. 하하하.”

차 한 잔 하실래요?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말을 채 꺼내기도 전에 그녀는 아직 남자친구와 연락을 하지 못했다면서 서둘러 숙소로 돌아갔다. 베토벤의 운명이 귓가에서 웅웅거리고, 내 손에 쥐어진 책은 힘없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런 쟁쟁. 나는 고인 눈물을 머금으며 생채기가 난 책을 집어 들었다. 바람이 시원한 어느 여름날. 나는 건물에서 나와 벤치에 앉아서 얼굴을 책에 묻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인이 한적한 시골에서 추린, 붉게 물든 시 선집. 「시가 내게로 왔다.」

2일

오전 7시. 캠프진행요원들은 “기상!”을 외치며 참가자들을 깨우기 시작했다. 어젯밤 자리를 뒤척이기는커녕 시 두어 편을 골라 읽다가 그대로 잠에 들었다. 덕분에인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상쾌하고 개운한 아침이었다. 하늘 높이 기지개를 쭉 켜고 연수원 지하에 있는 식당으로 향했

다. 밥을 먹는 등 마는 등 식사를 끝내고 서둘러 대강당에 들어섰는데, 이미 앞자리에 앉아 교육 자료집을 살펴보는 몇몇 참가자가 눈에 띄었다. 오전 프로그램은 특강을 듣는 것이었다. 나는 뒤쪽 구석에 놓인 의자에 앉아 영화 상영을 기다리는 평론가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강의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연히 앉은 자리는 명당이었다. 모든 참가자들의 세치 개수와 그 길이까지 측정할 수 있을 만큼 시야가 트였다. 그럼에도 나는 단 한 사람의 뒤통수만을 끈적끈적하니 바라보겠지만 말이다. 이윽고 창가 쪽의 자리에서 훌쩍훌쩍 커피를 마시고 있는 붉은 머리아가씨가 보였다. 가벼운 한숨과 함께 가슴 깊이 아린 생각 하나, 주인집 아주머니는 아메리카노가 무엇인지 과연 알기나 할까?

대수롭지 않은 온갖 잡념이 머릿속에 동동 떠다니는 가운데 아주 지루한 분위기의 강연이 시작됐다. 운명여자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 교수의 강연으로, 주제는 ‘21세기 새로운 이웃의 탄생’이었다. 여러분에게 그 지루한 강의를 그대로 옮겨드리자니 나의 융통성에 깊이 통탄하며 가벼운 욕설까지도 들을 수 있을 것만 같기에 두 시간의 강의를 한눈팔지 않고 듬췌하게 정리한 것만 아래에 덧붙이도록 하겠다.

『20세기 주거의 기능은 산업의 발달과 도시화의 영향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주거 기능의 일부가 다른 사회 기관에 의해 수행됨으로써 그 기능이 축소·약화된 반면 자녀를 사회화시키는 기능이나 이웃 구성원의 긴장과 피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기능,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은 오히려 확대·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거의 기능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듯이 미래에도 변화할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구성하는 가정과 마을 공동체가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존재할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21세기는 다변화한 시대상속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 성향에 맞는 전문적인 주거지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 이웃 제도는 도덕이나 가치와는 무관한 것이며, 새로운 시대 논리에 맞는 가장 이상적인 주거 제도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현장의 가장 앞에 서 있는 개벽의 주역이며, 스스로 선택한 이웃들과 분양받은 고급 주택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교복을 벗은 지 몇 년 지나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생각 이상으로 내가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일까? 강의 중간 중간에 일부 내용을 들을 때는 어릴 적, 셸러드의 살코기만 집어먹던 것처럼 내 귀에 쫙쫙 맛있게 들렸다. 죽집게 강사의 수업을 듣는 수험생처럼 일부 적극적인 참가자들은 교수의 물 마시는 소리까지도 메모지에 담는 것처럼 보였다. 한편 꽤 상당한 경쟁률을 뚫고 참가했음에도, 강의에는 무관심하고 핸드폰이나 졸음에 충실한 참가자들도 더러 있었다. 무엇을 다루고 어디를 가나 수업은 대부분 비슷한 분위기인 모양이었다. 혹시 나를 찾는 사람이 있을까, 잠깐 핸드폰 액정을 확인해봤지만 누구에게도 연락은 없었다. 심지어 그 흔한 대출스팸문자 마저도. 너무 하네, 이 사람들. 단 한 번도 외박을 하지 않은 바른생활 하숙생이 말없이 집을 나왔는데, 걱정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지? 하는 서운함과 동시에 저마다 고된 일상에 치여 사니 신경 쓸 겨를이 없을 수 있겠다, 하는 안쓰러움이 드는 것은 왜일까.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이왕 핸드폰을 잡은 김에 썰기를 박아야겠다.

「잘 잤어?」

1개월 만에 누나에게 보낸 문자였다.

첫 강의가 끝났다. 화장실에 한 번 다녀오니, 물 한 모금 마실 틈 없이 다른 강의가 이어졌다. 강사는 제1회 가족찾기캠프에서 새로운 이웃을 만나고, 주택을 분양받은 구세주 씨였다. 막 자리에 앉는데 진동이 느껴져 주머니에 넣은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문자 한 통이 와있었다.

「동생아, 돈 필요해?」

누나였다.

“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구세주올시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여전히 이 캠프가 어색한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캠프 초반에는 그랬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보다 더 심했죠. 그런데 이웃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른 보기를 개똥으로 아는 동네 아이들과 어떻게 함께 사는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오직 그 아이들이 관심 두는 거라곤 놀이터와 담배, 그리고 술이 전부더라! 이 말입니다. 직장에서 뻘 뻘지게 일하고 오면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 만 했는지 마주치는 학생들 눈은 하나같이 동태 눈썹이지, 다른 이웃들은 왔네, 갔네, 말도 없이 투명인간 취급하지. 가족이요? 하이고. 제가 야근하고 들어오면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 아니, 국가도 제멋대로 고르는 세상에 내가 살 집과 이웃을 마음대로 고르지 말란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위에서는 저보고 미친놈이랍니다. 하하. 제가 미친놈입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면 말이죠? 원래 살짝 미쳤던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를 써왔다! 이 말입니다. 이웃을 버린 여러분들을 우리 후손들은 영광의 얼굴로 기억해 줄 것입니다!”

참으로 수준 높은 강의였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속이 거북해진 나는 강의 도중에 바람을 쐬러 건물 밖으로 나왔다. 잠자리가 낮게 나는 파아란 오월. 분명한 한 여름인데도 바람은 시리게만 느껴졌다.

영덩이가 얼얼했다. 이대로 하루 종일 꼼짝 않고 앉아있어야 하나 싶었는데, 다행히 오후에는 몸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름하야 ‘위스키 우리 이웃’ 주어진 시간에 이웃의 사랑을 사진으로 가장 잘 표현한 팀이 우승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연수원 밖으로 참가자들이 우르르 나오니 신기했는지 파리를 쫓던 청과상 아주머니가 흥미로운 눈으로 쳐다봤다. 거리를 오가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몸이 들쭉쭉했던지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지만 마땅히 찍을만한 장소를 찾지 못했다. 어쩌면 찍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놀이터에서 모래성을 쌓고 있는 아이와 호뭇하게 바라보는 아이의 어머니를 보고도 못 본 척 했으니.

우리는 끝내 발품만 팔다가 터벅터벅 늘어진 어깨를 하고서 연수원에 돌아왔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의자에 앉아 머리카락을 쥐어짜다가 색다른 사진이라도 찍기로 했다. 그 사진은 지금 되짚어 봐도 정말 창피하다. 무한도전! 을 외치며 활짝 편 손바닥을 아랫배 앞으로 쪽 내미는 우리. 어떠한 감동도, 재미도 느낄 수 없는 그 사진을 이 글에 옮기지 못함이 다행스럽기까지 하다. 어떻게 우리 팀은 한나절이란 충분한 시간에도 이웃의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을까? 어쩌면 우리가 필요했던 것은 새 집과 낯낯한 이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달리 보는 눈이었던 것은 아닐까.

대강당 앞에는 우승팀의 사진이 걸려있었다. 늙은 노모의 휠체어를 끌고 있는 백발의 할아버지 사진이었다. 노모의 소녀 같은 표정과 그녀의 손에 쥐어진 작은 곰 인형이 봄날 쇠벌꽃보다

양증맞아 보였다. 그들의 자글자글 주름진 손가락, 앙상히 뼈만 남은 체구, 곳곳에 때가 얼룩진 옷. 사진 속의 할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가족찾기캠프 중간평가>

	교육내용	사진촬영 프로그램	원하는 이웃	종합 만족도
이선영	좋았어요.	좋았어요.	다 좋아요.	★★★★★
백심자	생각이 안나.	아쉬웠어.	누구든지!	★★★★☆
이한국	식상했어요.	다리 아팠어요.	그녀.	★★☆☆☆
성동하	그럭저럭.	시간이 많았더라면.	여자였으면.	★★★☆☆
하수연	즐거웠어요.	즐거웠어요.	모르겠어요.	★★★★☆

3일

사실상 캠프의 마지막 날이나 다름없었던 그날에도 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갔다. 오전에는 춤을 통한 ‘익숙해지길 바라’, 오후에는 조별요리경연대회 ‘우리도 요리사다’, 저녁에는 팀별장기자랑 ‘캠프스타킹’이 이어졌다. 과일과 야채 중심으로 자극적이지 않은 아침을 먹고 조금은 피곤한 안색으로 전 참가자가 연수원 체육관에 모이기 시작했다.

오전 9시. 중장년층 이상의 참가자가 많아서 춤이라기보다 가벼운 율동을 익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저마다 어설피지만 부족한 대로 열심히 따라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마음에 드는 참가자가 있으면 짝을 이루어 커플댄스를 추기도 했다. 나는 고민을 하다가 마음껏 즐거워하며 동작을 따라하는 붉은 머리 아가씨, 하수연의 옆으로 자리를 옮겼다. 때마침 호피의상의 강사가 야들야들한 콧소리를 목청껏 외쳤다.

“자, 이제 옆에 서 있는 사람의 손을 잡으세요.”

커플댄스를 추려고 자리를 옮긴 건 아니었는데. 생각지 못한 전개에 당혹스러워하며 아가씨의 손을 잡는데 어쩐지 찌릿찌릿, 처음 사귀 여자친구의 손을 잡았을 때의 느낌이 들었다. 새물내

나는 빨랫감처럼 손등이 고왔었지. 매일 식당에 나가는 엄마 대신에 집안일을 도맡았던 우리 누나의 억센 손보다도.

“한국 씨, 운동 좀 해야겠는데요?”

상념에 젖어있던 내게 속삭이는 아가씨의 입가에는 눈실난실한 미소가 걸려있었다. 가볍게 춤을 추는 아가씨에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긋하고 향긋한 향기가 흘렀다. 종일 삼겹살집 부엌에 쭈그리고 앉아 기계처럼 설거지를 해야 하는 누군가는 죽어도 가지지 못할 몰랑한 손과 사뭇한 허리의 온기. 아가씨의 목선에는 송골송골한 땀이 맺히는 듯했다. 그녀는 운동만 하면 배어나오는, 사람을 차별하는 이 치사한 향. 엄마가 막내 삼촌 결혼식 때 새벽부터 꽃단장하고 잠시나마 풍겼던 그 라벤더 향이었다.

엇박자 스텝을 뒤로하고 우리 팀은 경연대회에서 사용할 요리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연수원 근처에 있는 대형마트로 향했다. 우리가 정한 메뉴는 닭볶음탕과 스파게티였다. 우리는 필요한 재료를 모두 집어 카트에 담고서, 시식코너에 들러 처음 장보러 나온 신혼부부마냥 서로의 입에 음식을 넣어줬다. 매운 라면이 먹고 싶지만 동생이 좋아하는 짜장 라면을 선택하는 것, 싱거운 음식이지만 손가락을 빨아가며 간을 맞춰 엄마에게 맛있다고 말해주는 것, 허기지고 배고파도 끝까지 고기쌈 한 개 더 싸서 자식 입에 넣어주는 것, 무엇보다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내가 그날 새롭게 알게 된 가정의 참 모습이었다.

제법 친해진 우리가 최대한 걸음을 서둘러 연수원에 돌아왔을 때에는 벌써 장기자랑을 위한 야외무대가 설치되고 있었다. 이윽고 예정된 시간에 모든 참가자가 모였을 때 요리경연대회는 경쾌한 음악과 함께 시작되었다. 몇몇 팀은 시작종이 울리기도 전에 자리를 잡고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또 다른 팀은 요리를 하면서도 팀원들과 코에 밀가루 묻히며 장난을 쳤고, 어떤 팀에서는 흥에 겨워 요리에 쓸 술을 마셔버리기도 했다. 우승팀은 없었다. 모두가 만든 요리를 나누어먹고 추억을 공유하는 사람들뿐이었다.

참가자들의 볼에 뽀얀 홍조만큼이나 사방이 주황빛으로 물들 때 즈음 캠프의 꽃인 장기자랑이 시작됐다. 우리 팀은 첫날 정한 대로 여중생, 이선영이 피아노를 연주하기로 했다. 나는 소녀가 참으로 감칠맛 나는 연주를 들려주었으면 하고 바랐다. 회식비로 쓸 우승비용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자신감을 갖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할 수 있길 바랐다. 우리의 박수로 그녀의 자존감을 깨웠으면 했다. 부들부들 떠는 이선영의 어깨를 인상 좋은 아주머니는 토닥였고, 우리는 꼬덕꼬덕 웃으며 “실수해도 괜찮아” 라고 속삭였다.

요란한 불꽃과 폭죽으로 시작된 장기자랑 ‘캠프스타킹’ 모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에 잠깐 출연했다는 어느 개그맨의 안쓰러운 진행마저도 나름대로 즐거웠다. 동네 장터처럼 어수선한 가운데 첫 무대는 윤수일의 「아파트」를 성미산마을캠프로 개사해 부르는 팀의 무대였다. 양은냄비 뚜껑 두 개를 들고 나와 심벌즈처럼 박수치는 아줌마, 무대에 빗자루 이가 수두룩 빠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기타처럼 튕겨대던 머리 큰 소년, 도마에 칼질하며 록 가수처럼 소리치는 아가씨가 그런대로 간동한 하모니를 뽐냈다. 내 또래의 청년이 나와 브레이크 춤을 춘 무대도 있었다. 젊은이들의 환호만 시끄러운 줄 알았더니, 중장년층도 새살대고 가동거렸다. 흥에는 남

너노소 차별이 없나보다.

성미산마을 가족찾기캠프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공연들도 더러 있었다. 자신을 섹시한 돌싱녀라고 소개한 한 아줌마는 장금이처럼 입고 나와 순식간에 무대의 테이블에서 궁중요리들을 만들었다. 골동면, 화양적, 배추만두, 맥적까지 말로만 듣던 그 휘황 찬란 궁중 요리들. 무대와의 거리가 제법 있었는데, 요리의 향이 물큰 객석 맨 뒤쪽에 있던 내게도 느껴졌다. 소개만큼 섹시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소은의 「키친」이라는 노래에 맞춰 요리를 하고, 설명하는 모습에 누글누글한 매력은 있었다. 그녀는 사회자의 입에 맥적을 하나 넣어주기도 했다. 사회자가 이승에는 없는 맛이라며 복날 똥개 마냥 무대를 방방 뛰어다녔다. 노인들은 배를 잡고 웃어댔다. 낡은 정장 구두를 한보따리 들고 나온 여고생도 있었다. 그녀는 작은 가방에서 구두약과 술을 꺼내더니 헛기침을 해가며 구두를 손질했다. 어설픈 아방가르드 같은 그녀가 구두를 바라보는 눈빛과 구두를 닦는 속도는, 민통선 내 5분대기조 분대장의 그 긴장 같은 것이었다.

캠프 참가자 중 최고령이었던 할머니께서는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나와 진도 육자매기 한 소절을 부르셨다. 학 다리와 또랑또랑한 소녀의 눈을 가진 그녀의 꺾임과 떨림 속에서 세월의 서러움마저 묻어나는 것 같았다. 저 분은 또 어떤 사연이 있어서 그곳에 그렇게 위태롭게 서있어야만 했던 것일까. 참, 우리의 어리바리 소녀의 이야기도 들려줘야겠다. 그녀는 자기 차례 한 시간 전부터 입을 꼭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기 시작했다. 처음 달거리를 할 때처럼 한동안 초조해하며 가만히 앉아 있지도 못하더니, 막상 공연이 시작되고 나서는 도섭을 부린 듯 실수한 번 하지 않고 연주를 끝마쳤다. 굳은 몸으로 상기된 채 무대에서 내려오는 소녀를 아주머니가 꼭 안아주었던 것 같다.

장기자랑을 마친 우리 팀은 달빛과 선선한 바람이 잘 어우러진 작은 벤치에 따로 모여 앉았다. 상기된 기분을 달래기 위해 이웃위원회는 각 팀에게 캔 맥주를 팀원 수만큼 나눠주었다. 자유롭게 자고, 자유롭게 놀고, 자유롭게 연수원 밖으로 나가도 좋지만 내일 오전 9시까지 우리는 우리가 처음 그 조악한 캠프 티셔츠를 받았던 연수원 대강당에 모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술은 차오르고 마음은 가라앉았다. 외로운 사람들이 모인 시간, 나는 행복했다.

붉은 머리 아가씨가 오늘이 마지막인데 진실게임을 하는 게 어떨겠냐고 넌지시 제안했다. 피하고 싶었지만 분위기에 이끌려 우리의 비밀스러운 대화는 그렇게 시작됐다. ‘우리는 왜 이 캠프에 참가했는가?’ 민감한 질문이 튀어나오자 누구도 선뜻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한 획을 그은 가위 바위 보로 순서를 정했다. 아저씨는 술에 취해서 그런지, 혼자 주먹만 쥐고 있었다.

“몇 년 전에 대출을 받아서 삼겹살집을 하나 차렸어. 처음에는 그 동네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 아는 사람들도 많고, 많이들 찾아오더라고. 밤낮으로 정신없이 일해도 피곤한지 몰랐지, 그때는. 돈이 막 한 움큼씩 들어오니깐. 그런데 한 몇 달 그렇게 일하니까 내가 꼴에 그것도 사장이라고 자만했나봐. 내가 똥똥한 게 사실 좀 게을러서 그렇기도 한 것 같아. 그 겨울날 추운 아침에 장보러 가는 것도 집사람 혼자 보고, 나는 나대로 꼴에 사장이라고 어깨에 힘만 주고 다니고, 아는 놈들 오면 술값도 안 받고, 속이 좀 없었지 내가. 애기엄마 혼자 하게 된 장사가

어디 잘 돌아갔겠어? 애 엄마는 애 엄마대로 힘드니까 집안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장사 수입도 없고. 그렇게 2년도 안돼서 남는 게 없어서 식당 못해먹겠더라고. 지금은 말 그대로, 고개 숙인 가장이야. 속이 답답해서 이곳까지 오게 됐네.”

그 누구도 어떤 대답을 바라지 않고, 아저씨의 이야기를 담담히 들을 뿐이었다. 손톱만 물어뜯고 있던 소녀도.

“저, 저, 저는 언니가 한 명 있어요, 모든 면에서 완벽한. 눈도 크고, 심지어 가, 가슴도 크고. 그에 비하면 저는 못난이예요, 그냥. 다들 언니를 좋아해서 미, 미스코리아 나가라 판검사가 되라 하는데 그들이 저에게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언니 반만 따, 따라가라는 말 밖에는…… 시, 심지어 저에게 말도 걸지 않죠. 아마 그들도 저를 못난이라고만 생각하는 거겠죠.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어떻게 부모님까지 언니만 늘 최고의 딸일 수 있죠? 제가 이렇게 소, 소심하고 멍청하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저도 이, 이제 누구의 동생이 아니라 진짜 저로서 사,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요. 진짜 이선영으로 말이에요!”

그 인상 좋고 밝았던 아줌마는 언제부턴가 하염없이 울고만 있을 뿐이었다.

“나는 참 좋은 남편을 만났어. 내가 사실 조금 못생겼잖아? 나도 알아, 나 못생긴 거. 그래도 우리 남편은 내 얼굴이 아니라, 내 마음을 봐주더라고. 그때는 참 부러울 게 없었지. 나는 있잖아, 참 행복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가…… 내가 사실 애를 못 낳는다, 그걸 그이가 알게 된 순간부터 관계가 건잡을 수 없이 소원해지더라고. 그이는 나도 나지만 아이들을 참 좋아했거든. 내가 조심스레 입양 얘기를 꺼냈는데, 자기 아이가 아니면 도저히 한평생 키울 자신이 없다는 거야. 그 아이에게 상처주고 싶은 마음도 없다 그러고. 그래, 그렇게 떠나갔지. 그 개새끼가. 그렇게 떠나갔어도 난 우리 남편 미워하지 않아.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따로 산지가…… 벌써 몇 해냐? 하도 오래돼서 말이야. 어쨌든 별거하고 나서 한 삼 년쯤 되니까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거야. 요즘은 정말 남정네의 품이 그리운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의 품이 그리워, 사람이.”

아까부터 빈 캔만 만지작거리던 붉은 머리 아가씨가 입을 뻗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너무 슬픈데요. 사실 저는 이런 말을 꺼내기가 너무나도 죄송해요. 저는 우리 이웃에 대해 별 불만이 없어요. 그냥 호기심에 신청했던 건데, 이렇게 털어놓아 버렸지 뭐예요. 사실 캠프 기간 내내 좀 이질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이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과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너무 너무 죄송했어요. 지금 진실게임이니까 솔직하게 말씀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 수연 씨. 그럴 수도 있지…….”

괜히 가슴이 싸하기만 했다. 사실 이날 술에 취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조차 생각이 나지 않는다. 다만, 이야기를 꺼냈다면 아마 이런 식이었을 것이다.

“저는 어렸을 때 엄마랑 장보러 가는 것을 되게 좋아했어요. 어디 놀러갈 형편은 안돼서 그냥 장보러 가는 게 체계는 소풍이었거든요. 휴일이면 엄마 손잡고 버스를 타고 시내에 있는 큰 마트에 갔는데요. 카트를 끌면서 우유도 거기에 넣고, 요구르트도 넣고, 사과도 넣고, 진짜 먹고 싶은 건 다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엄마가 제 마음대로 못 넣게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그때가 IMF가 터지고 난 직후였던 것 같아요. 저희 집 가세가 많이 기울어서 간식비도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거겠죠. 그런데 하루는 장보다가 엄마가 끌고 있던 카트에 제 발이 밟혔어요. 저는 너무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막 울고..... 그때 엄마가 카트에 빵 하나를 넣어주시더라고요. 그 긴 빵 있죠, 바게트 빵. 제일 싸고 양도 많은, 그리고 참 딱딱한 바게트 빵 말이에요..... 그 때가 지금은 너무나도 그리워요.”

4일

오랜만이였다.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이후로 이렇게나 취해본 것은. 머리가 깨질 것처럼 기상은 고통스러웠다. 어젯밤에 어떻게 숙소까지 들어왔는지도 생각나지 않았다. 팀원들과 연수원 밖으로 나가서 술 마시고, 노래방에 가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아..... 핸드폰 액정을 확인해보니 문자가 네 통이나 와있었다. 이쯤 되니 내가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건지, 핸드폰이 나를 보고 있는 건지 분간도 되지 않았다.

「이 미친놈아, 너 어제 어디에서 잤어? - 누나」

「너는 대체 뭐하는 놈이냐 - 엄마」

「아들아,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피임은 잘해라. - 아빠」

「한국 씨, 우리 마지막 날인데 같이 맥주 한 잔 할까요? - 진달래」

나는 조금이나마 숙취를 해소하기 위해 찬물로 샤워를 하고 아침은 거른 채로 대강당에 입장했다. 이웃만 얻으면 고급 주택을 분양 받고 ‘4000에 30짜리’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다. 참가자들이 4일 간의 피로는 뒤로 한 채, 저마다 설레는 표정으로 속속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나는 우리 팀원들 옆에 자리를 잡았다. 술이 덜 깬 나의 동태눈이, 저 멀리 진달래의 맑은 눈과 마주치자 그녀의 곱다란 얼굴에는 문존한 미소가 번졌다. 나는 깜짝 놀라 두 눈을 부릅뜨곤 입모양으로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그녀의 손에는 따뜻해 보이는 커다란 텀블러가 있었다.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우리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선택지를 받고 1번에서 50번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써서 제출했다. 나는 서둘러 쪽지를 써서 선택함에 넣었다. 아주 잠시였지만, 발표를 기다리는 참가자들의 표정에 바짝은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다. 기나긴 여백이 사라지고, 참가자의 순서에 따라 원하는 새 이웃이 호명되기 시작했다. 한 명, 한 명 호명될 때마다 대강당에 박수와 탄식이 찌렁찌렁 울려 퍼졌다. 그리고 내 순서가 왔을 때, 나는 조용히 낡은 가방을 들고 대강당을 빠져나왔다.

“아니! 이게 뭐야. 47번 참가자님! 이한국 씨, 0번은 뭐니까? 이한국 씨! 이한국 씨!”

새벽에 비가 내렸는지 이슬 맺힌 초록빛 나뭇잎이 훑날리고, 습기 묵은 흙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햇빛에 물든 성미산이 저 멀리 반짝였다. 학기 내내 애타게 기다렸던 성미산마을 가족찾기 캠프. 나는 연수원에서 빠져나왔다. 지금 집에 들어가더라도 바쁜 우리 이웃들을 당장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괜히 머리카락 긁고 울리지 않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택시를 기다렸다. 덜커덩거리며 멈춘 빈 택시에 올라타자, 히말라야 백곰처럼 생긴 푸근한 기사 아저씨가 “안녕하세요.” 라고 웃으며 내게 인사를 건넸다. “네에, 안녕하세요.” 나 또한 최대한 사람 좋은

표정을 해보이며 반갑게 인사를 받았다.

“어디로 가세요?”

“집이요, 4000에 30짜리.”

차창 너머의 하늘이 높고도 푸르른 날이었다.